

**아가 - 그리스도의 신부가 준비되도록  
개개인의 믿는 이가 그리스도와 나누는  
사랑의 교통에 대한 점진적인 체험**

**1/16 월**

**아 1:2, 4**  
2 “그이 입의 입맞춤들로 내게 입맞춤해 주었으면!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나은 까닭이랍니다.  
4 나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당신을 좇아  
달려가렵니다—왕께서 나를 그분의 내실로 이끌어  
들이셨으니— 우리는 당신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당신의 사랑을 포도주보다 더 높이 찬양하렵니다.  
그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답니다.

**호 11:4a**  
4 사람의 줄들로, 사랑의 끈들로 나는 그들을 이끌었고

**요일 4:9-10**  
9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10 사랑은 이렇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분의  
아들을 우리의 죄들에 대한 화해 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시 2:12**  
12 아들에게 입 맞추어라. 그러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진노하시어 너희가 길에서 멸망하리니 그분의 진노가  
느닷없이 불붙기 때문이다. 그분께로 피하는 사람은  
모두 복이 있다.

**요 14:23**  
23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할 것입니다.

**고전 6:17**  
17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1/17 화**

**아 2:8-10, 13-14**  
8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 지금 그이가 오고 있어요,  
산들을 뛰어오르고 언덕들을 뛰어넘어.  
9 내 사랑하는 이는 가젤이나 젊은 수사슴 같답니다.

지금 그이가 우리 담 뒤에서 서성이며 창문들 틈으로  
들여다보고 창살 틈으로 엿보고 있군요.  
10 내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응하여 말하네요. ‘일어나  
주오, 내 사랑 내 어여쁜 이여, 어서 와 주오.  
13 무화과나무는 열매가 익어 가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발하고 있소. 일어나 주오, 내 사랑 내  
어여쁜 이여, 어서 와 주오.  
14 바위틈에 있는,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여! 그대의 표정을 보게 해 주고 그대의  
목소리를 듣게 해 주오. 그대 목소리는 달콤하고 그대  
표정은 사랑스럽다오.

**롬 8:2, 4, 29**  
2 왜냐하면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4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29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만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고후 5:17**  
17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물입니다. 옛것들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1/18 수**

**아 3:9-10**  
9 솔로몬왕이 자신을 위해 레바논 나무로 가마를  
만들었다네.  
10 그 기둥들은 은으로, 바닥은 금으로, 자리는  
자주색으로 만들었는데 그 한가운데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아로새겨져 있었다네.”

**아 4:12, 16**  
12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긴 동산, 덮인 우물,  
봉해진 샘.  
16 “북풍아, 깨어나라. 남풍아, 오너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그 향기를 날려 내 사랑하는 이가 그이 동산에  
와 그이의 가장 좋은 열매를 드시게 하여라.”

**엡 2:22**  
22 그분 안에서 여러분 또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되고 있습니다.

**고후 5:14**  
14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우리가  
단정하는 것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롬 8:28**  
28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고후 4:16-17**  
16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17 우리가 받는 환난은 일시적이고도 가벼운 것인데,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도 중대한 영광을 이루어 냅니다.

**1/19 목**

**아 6:10, 13**  
10 ‘새벽처럼 밝아 오고 달만큼이나 아름다우며  
해만큼이나 맑고 깃발을 든 군대만큼이나 두렵게 하는  
이 여인이 누구인가?’ ”  
13 “돌아와요, 돌아와요, 술람미여 돌아와요, 돌아와요,  
우리가 그대를 볼 수 있도록.” “너희는 어찌하여 두  
진영의 춤을 보듯 술람미를 바라보려 하느냐?”

**잠 4:18**  
18 그러나 의인들의 길은 여명의 빛 같아 점점 더 밝게  
빛나 한낮에 이른다.

**빌 2:15**  
15 그것은 여러분을 나무랄 데 없고 순결하게 하여,  
어그러지고 비뚤어진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들이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세대  
가운데서 세상의 발광체들로 빛나서

**시 110:3**  
3 주님의 전쟁의 날에 주님의 백성이 헌신의 광채  
안에서 기꺼이 자신을 바치리니 주님의 청년들은  
주님께 새벽의 태에서 나온 이슬과 같을 것입니다.

**고후 3:18**  
18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고후 13:3-4**

3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증거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에 대하여 약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안에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4 사실 그분은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십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하지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 것입니다.

**롬 8:37**

37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해 넉넉히 이깁니다.

**1/20 금**

**마 7:11-12**

11 오세요, 내 사랑하는 이여, 우리 함께 들로 나가 마을들에서 묵어요.

12 우리 일찍 일어나 포도원들로 가서 포도나무 움이 돋았는지 꽃망울이 터졌는지 석류나무 꽃이 피었는지 보아요. 거기서 나의 사랑을 당신에게 바칠게요.

**고후 6:1**

1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가 또한 여러분에게 간절히 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골 1:28-29**

28 우리가 그분을 전파하여 온갖 지혜로 각 사람에게 권면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위한 것입니다.

29 이것을 위하여 나도 내 안에서 능력으로 운행하시는 분의 운행에 따라 수고하며 분투하고 있습니다.

**고전 3:9**

9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경작지이며, 하나님의 건축물입니다.

**벧전 4:10**

10 각 사람이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로서 서로 은사를 공급하십시오.

**롬 12:1**

1 그러므로 형제님들,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거룩하고 살아 있는 희생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합리적인 봉사입니다.

**요 21:16**

16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 그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가 예수님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목양하십시오.”

**1/21 토**

**마 8:5-6, 13-14**

5 “사랑하는 이에게 몸을 기댄 채 광야에서 올라오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 “사과나무 아래에서 나 그대를 깨웠다고. 거기에서 그대 어머니가 산고 겪었고 거기에서 그 여인이 산고 겪으며 그대를 낳았다고.”

6 “나를 도장처럼 당신 마음에, 도장처럼 당신 팔에 지녀 주세요. 사랑은 죽음만큼이나 강하고 질투는 스올만큼이나 잔인하니까요. 그 불꽃들은 이글거리는 불꽃들, 여호와와 불길입니다.

13 “동산들에 거하시는 이여, 나의 벗들이 당신 목소리에 귀 기울이니 나도 그 목소리를 듣게 해 주세요.

14 내 사랑하는 이여, 속히 오셔서 향기 그윽한 산들 위에 있는 가젤이나 젊은 수사슴처럼 되어 주세요.”

**사 50:4-5**

4 주 여호와께서 나에게 가르침받은 이의 혀를 주시어 지친 사람을 말로 붙들어 주는 법을 알게 하셨다. 그분은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되 나의 귀를 깨우쳐 주시어 가르침받은 이같이 듣게 하신다.

5 주 여호와와는 나의 귀를 열어 주셨으며 나는 거역하지 않았고 돌아서지도 않았다.

**출 21:6**

6 그의 주인은 그를 하나님에게 데리고 와야 하며,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로 데리고 가서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어야 한다. 그러면 그는 영원토록 그 주인을 섬겨야 한다.

**단 2:35**

35 그러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모두 일시에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의 겨갈이 되어, 바람에 날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습니다.

**계 22:20**

20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속히 가겠다.” 아멘. 주 예수님, 오십시오!

**1/22 주일**

**빌 3:7-15, 20**

7 그러나 나에게 유익이 되었던 것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8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또한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9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온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입니다.

10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11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뛰어난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12 내가 이미 획득하였다는 것도 아니고, 이미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나 또한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힘을 다하여 추구할 뿐입니다.

13 형제님들, 나는 아직 내가 붙잡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한 가지 일만을 합니다. 즉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힘을 다해 수고함으로써,

14 나에게 주실 상을 위하여 풋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위로 부르셨습니다.

15 그러므로 누구든지 충분히 성장한 사람들은 이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다른 어떤 일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여러분에게 계시하실 것입니다.

20 우리의 국적은 하늘들에 있으므로, 우리는 거기에서 오실 구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2023. 1. 16 ~ 2023. 1. 21**

단체로 읽을 말씀: *The Economy of God and the Mystery of the Transmission of the Divine Trinity*, 6 장

찬송: 556 (英) 주님의 이름 솟은 향기름 (中:408)